

새가족을 위한 교회생활 안내

1. 교회의 기도문과 신앙고백에 대한 안내

1) 주기도문 :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 사도신경 : 믿음의 고백을 기도문으로 작성한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 교회의 직책에 대한 안내

교회에 오면 다양한 직책 때문에 오해나 혼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직책은 교회 안에 위, 아래의 서열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 팔, 다리, 귀, 코, 입 등의 역할이 나누어진 것처럼 각자의 다른 역할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1) 목사 : 목사는 다른 말로는 성도들을 양에 비유해 양치기라는 뜻을 가진 목자라고도 합니다. 목사는 신학을 공부한 뒤, 성도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예배를 책임집니다.

- 2) 담임목사 : 목사들 가운데 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는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한 분이며, 교회의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 3) 부교역자 : 부교역자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담임목사님을 보조하는 직책입니다.
- 4) 장로 : 장로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점이 없는 사람으로 평신도 중에서 선출됩니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이 되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5) 권사 : 교역자를 도와 가난한 가정과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 그리고 성도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 6) 안수집사 : 교회 내 각종 일들을 맡아 봉사하며, 재정에 관한 일과 구제, 봉사 등을 맡아서 일하는 직분입니다.
- 7) 서리집사 : 안수집사를 대행하며 일년 직이며, 매년 다시 임명 받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안수집사와 동일한 일을 하며 교회의 제반 살림살이를 담당합니다.

3. 교회의 절기와 예배에 대한 안내

세상 사람들이 명절을 챙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교회가 지키는 절기와 예배에 대한 용어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부활절 :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2) 맥추 감사절 :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추수한 곡식을 바친 것같이, 봄철에 곡식을 거두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6월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지킵니다.
- 3) 추수 감사절 :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지킵니다. 이 날은 일년의 양식을 거두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성탄절 :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매년 12월 25일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 5) 세례식 : 세례는 죄악된 육체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의 의식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야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교단에 따라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기도 하고,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6) 성찬식 :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데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의 몸이니 기념하라.”고 하였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나의 피다.”하시며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7) 송구영신예배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12월 31일 자정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에서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해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8) 수요일예배 : 주일을 지낸 후 삼일 째 되는 날 드리는 예배로, 삼일예배라고도 합니다. 삼일예배는 한국교회 초기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길다고 생각한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주중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으며 복음이 선포되던 초창기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안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여러 용어는 새신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로 기존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그 의미를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용어들에 익숙해짐으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다 순)

1) 간증 :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 잘못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 치유 간증과 같은 특별한 간증도 있고, 넓게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거나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을 나누는 생활 간증도 있습니다.

2) 교구·교구장 : 목장들로 구성된 상부 교회 행정조직으로서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교구장은 교구의 리더로서 목자들의 사역을 돕고 새가족 정착과 전체적인 교구 관리에 힘쓰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구장은 담당 교구 교역자의 영적인 지도 아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교우와 교회의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3) 구원 :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하며, 교회에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4) 그리스도·메시아 : 그리스도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직하는 의식에서 기름을 부었는데(레 4:3, 삼상 16:1) 예수님이야말로 위의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 5) 구역·구역장 :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서 몇 가정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를 뜻합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리더로서 구역모임을 인도하고 구역원들의 영적 필요를 돌아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역 모임은 주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함께 모여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 6) 묵상 : 성도들이 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가는 개인적 경건생활을 말합니다.
- 7) 멘토링 : 멘토십. 멘토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을 의미합니다. 멘토링의 관계는 가르치는 멘토(Mentor)와 배우는 멘토리(Mentoree) 혹은 멘털 이루어집니다.
- 8) 바나바 :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과 목장모임 참여를 도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우를 말합니다.
- 9) 보혜사 : 이 말의 뜻은 ‘위로자, 도우시는 이(영어로 하면 Counselor)’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를 대신하여 제자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시련과 박해에 참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요 14:16, 15:26, 16:7, 요일2:1) 일명 ‘예수의 영(행 16:7)’이라고 합니다.
- 10) 복음 :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롬 1:16)는 것입니다.
- 11) 부흥회 : 신자들의 믿음생활을 고양시키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가지는 신앙집회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경회 중심의 집회를 가지다가 6·25 이후부터는 심령을 뜨겁게 하는 부흥회 성격의 집회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 12) 비전 :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 전도와 같지만 꼭 구분 한다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심방 : 목회자 혹은 교회 직분자가 가정이나 개인을 찾아가서 신앙적인 교재를 통하여 신앙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더불어 매우 중요시되는 목회활동의 하나입니다.
- 14) 아멘 :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 15) 영생 :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주일성수 : 주일을 평일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시고 친히 안식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날인 안식일 다음날, 즉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7) 중보기도 :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18) 중생 :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거듭난다(요 3:3), 새로 지음 받은 사람(고후 5:17, 엡 4:24, 골 3:10)’등으로 표현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19) 할렐루야 :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의 히브리말입니다.

20) 형제님 · 자매님 :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고 하심으로 형제의 범위를 육신의 형제를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지체들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간에는 직분이나 형제님 ·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21) 회개 :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단은 정통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교회의 초창기부터 거짓 교사들이 성경 교훈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면서 교회 안으로 몰래 숨어들어 세력을 키우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사회에 일으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단(異端)은 ‘끝이 다르다’는 한문 풀이의 말처럼 본색을 감추기에 일반인 혹은 일반 성도들이 알기란 수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견하셨고(마 24:4,5)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4:11,12). 이러한 이단들을 사탄이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과 같고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입니다(고후 11:14,15).

과거에는 이단이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교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으로 매도되어 비밀스럽게 행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력을 드러내어 기존 교회에 정면도전해 올만큼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마구 번져나가는 이단은 현재 사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이단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이단에 대한 바른 정의와 현재 우리 곁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며 기존 신자들을 노리는 이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단의 현재 상황

현재 기독교들의 숫자는 861만 명인데 반해, 한국의 이단들의 활동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40여명의 자칭 ‘재림주(재림 예수)’와 200여개의 이단·사이비집단이 있으며, 2552곳에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사이비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무려 200만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안식교)로 전국에 829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선명 교주를 재림예수로 주장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489곳이 있으며,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은 232곳, 기쁜소식선교회(구원파, 박옥수)는 206곳이 있습니다. 물몬경이라는 자체 경전을 가진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물몬교)는 138곳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81곳, 신천지 47곳, 안상홍 증인회(안증회)는 16곳이 있습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이단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419곳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기독교예수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선교회’ 등 기존 정통교회의 교단명이나 단체명을 사용하고 있어 겉으로는 전혀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이단들로는 신천지, 안증회, 기쁜 소식, JMS 등이며 이들은 교회 외부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도 침투하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문화매개체를 통해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신문사 등의 여러 문화단체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옹호하거나 젊은 층을 겨냥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이단에 대한 판별

본래 “정통”이란 말은 현재의 퇴색된 뉘앙스가 아닌 ‘옳은 믿음’ 혹은 ‘옳은 의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나 그릇된 믿음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단은 정통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지 못한 믿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과 바르지 못한 주장을 중심으로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경 :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 VS 성경과 동등한 교주의 가르침

정통 기독교 신앙은 현재의 66권의 신구약성경을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올바른, 완전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에 더해 교주들의 가르침을 주저 없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가르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탕에는 성경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물론경(물몬교), 원리강론(통일교) 등의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의 바람직한 해석을 넘어서는 교주의 말을 신봉하게 됩니다.

2) 구세주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VS 하나님의 아들인 교주 혹은 재림주인 교주

정통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세주로서 필요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개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상시하거나, 재림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고 말씀하셔서 다시 올실 때에는 소수만 비밀스럽게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16)고 말씀하심으로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 구원 : 믿음 VS 행위

정통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강조하여 맹신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물질을 끌어 모으거나 정죄함으로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니면 영적 깨달음을 통해 구원의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신앙생활의 근거 : 성경말씀 VS 개인적인 체험 및 예언

정통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성경말씀’에 둡니다. 그러나 이단은 체험신앙(계시, 환상, 예언, 꿈 등)을 가진 교주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신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험한 거짓경험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의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자신의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증

언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엄청난 계시의 체험을 했어도 그것을 결코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고후 12:1~10)

5) 내세 : 영원한 천국과 지옥 VS 지상천국

정통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이루어지며, 심판 후 영원한 새로운 천국의 도래를 확신합니다(계 21:1~27 참조). 그러나 이단들은 대부분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모두가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신도들을 일정한 곳에 모이게 하고 집단생활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단들은 지상 천국을 강조하면서 무분별적인 희생이나 충성을 강요하며 심지어 가정이나 직장까지도 버리고 맹신적 충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이단들의 성향이 말세적인 신아에 치우쳐 있는데다가 재림의 일자를 실제적으로 거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 13:32~33)라고 말씀하셨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주요 이단에 대한 소개

다음의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들로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알고 각 이단의 특징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과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딤후 3:10-11)”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 신천지 (교주 : 이만희)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에 대해 “예수의 권세를 받아 구원과 심판, 예언과 증거, 모든 일을 맡아서 수행할 육체적인 사명자, 보혜사, 일곱 인을 떼는 자”등으로 소개하며 그 이단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을 부인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른 해독을 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자신들의 교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릇된 성경해석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닌 교주를 믿어야 실제적인 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초월적인 천국을 부인하고 신천지가 이 땅(구체적으로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 중 엘리야가 거론된 것을 그릇 해석하여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기존의 교회 내부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로 끌어들이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출 등을 유도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2007.5.8. MBC PD수첩에 방영).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니, 교회 밖의 성경공부를 결코 하지 않아야 하며, 성경공부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상홍증인회 (일명 안증회 교주 :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경기도 분당 이매동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정파괴,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일반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는 집단입니다. 교주인 안상홍은 1985년 2월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식사 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안상홍의 첩인 장길자가 여자 교주가 되어 이단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상홍을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로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으로 왔으나 다윗의 재위기간인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생애 3년 만에 죽었는데 안상홍은 67세에 죽어 예수님이 못다하신 40년의 사역기간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많은 물소리…거문고 타는 자”의 내용을 인용하고 많은 물을 큰 물(洪)로 거문고 소리(商)로 “상홍”이라고 글자 풀이를 하여 안상홍이 분명한 재림주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교주인 안상홍이 죽은 후 그 첩인 장길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 혹은 어린양의 신부”라고 해서 여교주로 내세우는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토요일 안식을 주장하고 지킴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부정하며, 구약의 유월절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바관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는 성경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일이라 주장하고,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 교주 : 정명석)

JMS는 교주인 정명석의 영문 첫 자를 상징함과 동시에 Jesus Messiah Savior로도 해석하여 교주가 구세주임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세계청년대학생MS 연맹, 동서크리스찬연합, 국제크리스찬연합 등의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전국 240곳의 지교회가 있다고 하며,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 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주된 교리는 주로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로 인봉해 놓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내 만든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성경해석보다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마17:24~27; 예수님의 성전세를 물고기에서 얻으신 것이 아닌 추종자들에게 빌린 것, 창3장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 등)을 바탕으로 성경을 풀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으로 보며, 교주가 이를 구속이 완전하다고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만 보아도 JMS는 이단단체임이 명백하며, 교주인 정명석 자신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1999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피해자의 진술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외유 중 추문에 휩싸이다가 현재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수감 중에 있습니다. 위에 거론한 JMS의 단체들을 기억하여 대학 내에서 접근해 온다면 반드시 거부함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쁜소식선교회 (일명 구원파 교주 : 박옥수)

현재 구원파는 군신찬, 이요한, 박옥수 계열이 있고,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곳은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입니다. 이들은 ‘죄사함 ·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경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단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면서 ‘예수 믿으면 죄가 씻겨진다.’는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과 동시에 ‘깨달음’을 강조하여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사해진 영적 생일을 알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며 회개를 지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을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규정지으며,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단정 짓는 것이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성수, 십일조, 금식, 새벽기도, 기도생활을 율법이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율법에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정통 교회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들이 이끄는 성경세미나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5)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이들은 ‘수혈거부’와 ‘집총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는 “동물을 피 채 먹지 말라”(창 9:4, 레 19:26)는 성경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며, 집총 거부(병역거부)는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왕국회관 1,500여 개, 교직자 수 7천여 명, 신도 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생활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은 14만 4천의 특수 구원대상자에게 제한되며,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가능한 길을 터놓았을 뿐 결국 인간의 절대적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교리를 왜곡하여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방문전도에 열심인 것은 이런 교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방문해 왔을 때 문을 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들의 주장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이들과 직접 만나 논리에 반박하려 하려는 태도는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